

■ KAA 광장

1. 민병준 회장, 방송위원에 선임돼



한국광고주협회 민병준 회장이 방송위원에 선임됐다. 그간 광고계에서는 통합 방송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새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에 광고계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기해왔으며, 이번에 민병준 회장이 광고계 인사로서는 최초로 방송위원에 선임됨으로써 오랜 숙원을 풀었다.

방송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이번에 방송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김정기(金政起) 위원장을 비롯, 조강환(曹康煥) 前 방송위 부위원장, 민병준(閔丙駿) 한국광고주협회장, 이경숙(李景淑)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임형두(林炯斗) 前 SBS 제작본부장, 방송작가 김석야(본명 김형근·金亨根)씨, 강대인(姜大仁)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영구(姜英求) 前 마산MBC 사장, 성우 고은정(高恩鼎)씨 등이다.

2. 2000년 매체전략 워크숍 개최



한국광고주협회는 회원사 광고담당 팀장급을 대상으로 1월 20일~22일까지 둔내 현대성우 리조트에서 2000년 매체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격한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사 광고·매체담당자들의 매체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총 38명이 참석했다.

제1주제는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매체전략'이라는 내용이었고, 제이윌터 톰슨의 이명훈 상무가 매체시장 현황, 매체시장 환경변화, 방송광고공사의 GS 개념과 매체관리의 GS, 방송광고공사의 GS에 대한 광고주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제2주제는 '인쇄매체 광고산업 99년 결산 및 2000년 전망'으로 진행됐으며, 제일기획 박정래 국장이 99년 광고시장 결산, 2000년 인쇄매체 광고시장 전망, GDP와 총광고비 비교, 매체의 환경변화와 인쇄매체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제3주제는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미디어 전략 및 운영방안'으로 진행됐으며, 스타콤 조현주 국장이 매체환경의 변화, 매체전문회사의 등장 및 이용방안, 전체 커뮤니케이션전략에서의 미디어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더불어 온라인 광고시장에 대한 이해가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디킴즈 황기현 실장이 온라인 광고시장 상황,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이해, 성공적인 온라인 광고집행, 주요매체 설명과 광고집행 사례, 매력적인 온라인 매체 따라잡기 등에 발표했다. 한편 강의를 끝나고 워크숍 마지막 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미디어 전략이 불



가능한가'라는 주제에 대해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서범석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3. 한국마케팅포럼 1월 월례회의 개최

한국마케팅포럼은 1월 27일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1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일보 광고국의 마실언 이사를 초청, 2000년 신문매체 환경변화에 대해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마실언 이사는 이날 특강을 통해 "광고산업의 신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흐름과 같다"고 전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6~7%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산업은 큰 흐름에서 나뉘 이유가 없으며, 적어도 주요 신문사들은 큰 폭의 광고매출액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 제8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접수마감 및 1~2차 심사 완료



제8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출품작 접수가 1월 24일 마감됐다. TV 부문 248편, 신문부문 230편, 잡지부문 121편, 라디오부문 47편 등 총 646편이 출품되었으며, 이는 예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편 1월 28일에는 조병량 한양대 교수, 김민기 경주대 교수, 윤호섭 국민대 교수, 이성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부장, 박효신 광고주협회 상무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단의 1차 심사가 진행됐으며, 2월 11일에는 126명의 소비자심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사가 완료됐다.

소비자단체장이 참여하는 최종 심사는 2월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 심사에 오른 작품은 TV부문 53편, 신문부문 29편, 잡지부문 21편, 라디오부문 12편 등이다. 시상식은 3월 14일 오후 4시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5. 2000년 제1차 이사회 개최



한국광고주협회는 2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전경련회관 19층 도원에서 2000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99년 사업보고를 접수했으며, 99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2000년 사업계획대강안과 예산안 및 임원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삼성 이순동 전무, 현대자동차 최한영 상무, 일양약품 노시평 상무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데이콤 노순석 상무 등 9명이 사무국에 의결권을 위임했다.

6. GS협의회 제3차 모임 개최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GS협의회 3차 모임을 갖고, GS계획 및 방송법 이후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통합방송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중간광고 협조요청, GS 시행계획 일부 수정사항 등 현안이 논의됐다.

7. 방송3사 광고국장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광고주협회는 2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전경련회관 19층 도원에서 공중파 방송3사 광고국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슬립광고 중지건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으며, 통합방송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방송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8. 한국마케팅포럼 2월 월례회의 개최 안내

한국마케팅포럼은 2월 19~20일까지 제주도에서 풍림콘도에서 '통합방송법 시행 이후의 광고전략'에 대한 주제로 2월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월례회의는 워크숍 형태로 개최되며, 달라지는 방송광고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방송광고 심의제도 변경에 따른 광고주 대응방안, 복수 미디어렙 체제 도입에 따른 방송광고 구매전략, 방송광고 판매방식과 중간광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00년 한국마케팅포럼 사업계획 협의도 있을 예정이다.